

“분양 전환 약속 지켜라”

중흥건설 임차인들 분통

순천 해룡 중흥S-클래스 신대5차 임차인들 집단행동

건설사 “법정기한내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협의할 것”

최근 순천시청 정문 앞에 중흥건설 입주인 150여명이 회사를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순천시 해룡면 중흥S-클래스 신대5차 임차인들이다. 이들은 “중흥건설이 수년 동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하루속히 분양 일정을 공개하고, 협상 장소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2014년 5월 입주했다. 중흥주택이 80㎡, 94㎡, 112㎡ 등 3가지 모델로 30층 높이로 지었다. 현재 1488여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일반적인 분양전환 시기인 5년 거주 후의 절반을 줄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다.

짧은 기간에 분양아파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

는 기대로 인근 여수산단·광양산단 등을 일터로 하는 무주택자들이 몰렸다. 회사는 입주 당시 임차인들에게 ‘2년 6개월 후 분양가능’이라는 개별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훌쩍 지난데 이어 5년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이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임차인들은 “중흥건설이 자신들과 협의를 마쳐야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도 대화 자체를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임차인들은 2017년 초부터 분양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1000여세대 넘게 동의한 상태다. 추진위는 올해에도 2차례 공문과 민원 등을 꾸준히 제기했다. 순천시도 5차례 공문을 보내고 직접 회사 방문을 통해 분양전환을 요구해왔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배호 분양전환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커다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입주인 대다수가 동의하고 요구한 분양 약속을 지켜주라고 하는 것 뿐이다”며 “회사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힘 없는 서민이라고 무시만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흥건설 관계자는 “분양 전환은 5년이 끝나고 이후 6개월까지가 기간으로 이 시기가 지나서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주택법상 무조건 분양하도록 돼 있다”며 “분양 가격이 정해져 있고, 지금까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임대 보증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았는데 나쁘게만 말하면 우리가 오히려 더 억울한 면이 많아진다”면서 “법정기한인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매듭지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구례군, 섬진강 은어 수정란 300만개 방류

구례군은 지난 10일 섬진강 대표 어종인 은어 수정란 300만개를 섬진강어류생태관 인근에 방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정란 방류는 섬진강에 은어 자원을 증가시키고 내수면 생태계 복원과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섬진강환경이족보존회 주관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합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섬진강에서 직접 포획한 은어에서 채란 수정하여 방류하였다. 방류한 수정란은 향후 14일이면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갔다 내년 봄에 상류로 돌아온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무등산생태탐방원과 생태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담양군이 지난 11일 환경생태·체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태관광 활성화와 다양한 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

해 국립공원공단 무등산생태탐방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담양군과 무등산생태탐방원은 ▲ 생태관광 프로그램

공유 및 업무 홍보 ▲ 상호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 사업 발굴 ▲ 프로그램 운영의 인적·물적 지원 상호 지원 ▲ 기타 상호 발전과 상호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각종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담양군은 지난달 메타세쿼이아랜드 부지에 개구리생태관, 전시관, 교육실 및 무인카페 등을 갖춘 개구리생태공원 및 에코센터를 개관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무등산생태탐방원은 지난해 11월 광주호 호수생태원에 개원해 생태탐방 체험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박영명 기자

‘2019 화순 국화향연’ 25일 개막

오는 25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일원에서 ‘제38회 화순 군민의 날’ 기념행사 와 2019 화순 국화향연’ 개막 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화순군은 오는 25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열릴 예정인 2019 화순 국화향연(이하 국화향연) 개막일에 맞춰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올해로 38회를 맞는 화순 군민의 날 행사는 25일 12시 30분부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퓨전 난타, 국악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시작으로 13개 읍·면의 입장식과 군

민의 상 시상식 등이 열린다. 지난해 약 52만 명이 참여한 명랑경기과 읍·면 노래자랑·장기자랑, 가수 박현빈과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군민 소통·대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명랑경기과 읍·면 노래자랑·장기자랑, 가수 박현빈과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군민 소통·대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 52만 명이 참여한 명랑경기과 읍·면 노래자랑·장기자랑, 가수 박현빈과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군민 소통·대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명랑경기과 읍·면 노래자랑·장기자랑, 가수 박현빈과 박주희의 축하 공연으로 군민 소통·대통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스포츠센터 공설운동장에서 25일 저녁 7시부터 열린다. 이날 축하 쇼에는 미스트롯 진에 빛나는 송가인, KPOP을 대표하는 마마무와 청하, 안동역에서의 진성, 노라조, 신현희 등 내로라하는 국내 톱 가수들이 출몰한다.

군 관계자는 “1억2천만 송이 국화의 화려한 향연과 함께 불거리, 체험프로그램, 먹거리 등을 더욱더 풍성하게 준비했다”며 “이번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와 화순 군민화합 페스티벌이 2019 국화향연’ 축제의 대성공을 위한 첫 단추인 만큼 공직자, 화순 군민들이 하나 되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여수시, 외지인 거문도 뱃삿 50% 시범 지원

여수시가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외지인을 대상으로 여수-거문항 여객선비 50%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외지인은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고 거문도, 초도, 손죽도를 여행할 수 있다.

단, 나로도항을 이용하면 여객선비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여수시는 겨울철 비수기 섬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시는 관광객 유입 효과 등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고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수=송기후 기자

보성군, ‘달콤 테이스티 로드’ 진행



보성군은 지난 9일 한국차문화공원 일원에서 보성 미식 투어 ‘달콤 테이스티 로드’를 진행하였다.

‘보성 미식투어-달콤 테이스티 로드’는 최신 여행 경향에 미식투어 콘셉트를 접목한 여행 콘텐츠로 20~30대 젊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획됐다.

보성군은 이번 여행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동안 차밭을 둘러보고 차를 만들어 보는

등 체험 위주의 관광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관광 콘텐츠 보강으로 보성의 다양한 관광지와 특산품을 색다른 관점에서 선보일 계획이다.

9일 처음으로 실시된 ‘테이스티 로드’는 보성군이 보유한 가장 큰 관광자원인 차밭을 활용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여행 스타일인 피크닉과 키포크 스타일 팝아트 콘셉트를 더한 여행을 제안했다.

군 관계자는 “차밭 이외에 보성 관광 자원을 돋보일 수 있도록 보성음식과 힐링 여행이 어우러진 다양한 콘셉트의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성=안규일 기자

영광군, 천일염 수매 지자체 최초 시행

영광군은 7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천일염 4,000톤에 대한 수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여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저염식 식탁 선호, 정부의 나트륨 저감화 정책 등에 의한 식품관 변화로 천일염 소비량 지속 감소, 재고량 증가, 판매가격 하락 등 천일염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올해 처음으로 천일염 수매제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천일염 수매를 시행하기 위해 천일염 가격동향 분석, 물량 배정, 대행기관 운영방법, 수매기간 등을 검토 해왔다.

영광=서희권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근무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민적성 지원 및 법률 지원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